



공부가 되고 상식이 되는 시리즈 21

기후 위기 시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난민 이야기

박선희 지음, 박선하 그림

팜파스 펴냄 | 144쪽 | 값 13,000원 | 초등 중~고학년

책소개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이 책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기후 위기가 불러온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상 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짓밟고 빼앗아 가는지 동화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에 대해
생생히 알아보자!

기후 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상 기후에 대해 살펴보아요!

기후 난민, 기후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기후 위기 시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난민 이야기> 앞 표지에 등장하지 않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날씨

난민

분쟁

지구 온난화

위기

식량

이상 기후

자연 재해

해수면

자원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기후 난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해수면도 높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닷가, 아니 도시도 물에 잠길 수 있어.”

수민이는 이모의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다. 바닷가가 물에 잠긴다니?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모는 환경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다. 그런 이모가 한 이야기라면 엉뚱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니야. 이십 년 후, 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거든.”

“뭐, 뭐라고? 그렇게 빨리 잠긴다니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때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고향을 떠나야만 할 거야.”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응. 난민이 되는 거지.”

이모는 가라앉은 표정으로 수민이를 보며 말했다. 수민이는 얼떨떨한 얼굴이 되었다.

난민은 가난한 나라나 전쟁이 난 나라에서만 생기는 거 아닌가? 수민이에게 난민은 책에서 본 단어였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이모. 난민은 전쟁이 일어나야 생기는 게 아니야?”

“꼭 전쟁만이 난민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야. 수민아. 이모가 요즘 바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 □□에 대한 구호 작업 때문이야.”

수민이는 눈을 깜박였다. 난민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기후 난민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응. 바로 기후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이야. 방금 이모가 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자신의 일이 된 사람들이지.”

“그럼 진짜 살던 곳이 물에 잠겨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미세 먼지가 심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 가뭄으로 인해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폭우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어.”

1. 다음은 책 속의 한 장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2. 다음 중 '기후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해수면 상승으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집을 잃은 사람
- ② 집 값이 너무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
- ③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
- ④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3. 위의 글을 보았을 때 '기후 난민'은 무엇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인지 찾아 적어 보세요.

●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상 기후에 대해 살펴보아요!

마키는 흙으로 높이 쌓아 올린 제방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도했다.

‘제발 잘 버텨 줘야 해.’

마키와 아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방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건 폭우로 인한 홍수와 태풍 때문이다. 마키가 아주 어릴 적에만 해도 이렇게 자주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으로 오는 태풍)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이클론이 와서 벙골만을 초토화시킨다.

아빠 말로는 벙골만 바다의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사이클론이 잦아지고, 더 강해진다고 했다. 마키가 사는 방글라데시는 이상 기후로 제일 피해가 큰 나라라고도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마키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

‘ 제발 바다의 물이 뜨겁지 않게 해 주세요. 태풍이 오지 않게 해 주세요.’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하늘은 마키의 기도를 못 들은 모양이었다. 사이클론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적게 오는 건기가 오는 주기도 예전과 달라졌다. 논밭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곡식을 키울 수도 없었다. 무성했던 숲은 나무가 말라죽어 갔다. 예전에 논이었던 곳은 이제 새우를 키우는 양식장이 되었다.

결국 마키네 가족은 살던 섬에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주한 곳도 사이클론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또다시 살 곳을 찾아 사람들은 이주하고 또 이주해야 했다.

1. 위 글을 보고 이상 기후로 인한 변화 중 맞는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 ① 사이클론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타났다.
- ② 숲이 더욱 무성해졌다.
- ③ 우기와 건기가 오는 주기가 달라졌다.
- ④ 논밭이 더욱 넓어져 곡식을 많이 키우게 되었다.

2. 위 글에서 “사이클론이 더욱 자주 오고 강해지는 이유”를 찾아서 써 보세요.

3. 마키네 가족은 이상 기후로 인해 살던 집을 잃고 계속해서 살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요. 만일 마키처럼 집이 없어진다면 어떤 점이 힘들고 불편할까요? 두 가지 적어 보세요.

-

-

● 기후 위기, 기후 난민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후 위기, 기후 난민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해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적어 보세요.

-

-

2. 미래의 지구는 지금 내가 만든다! 우리 지구가 미래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나요?

내가 만나고 싶은 미래의 지구 모습을 그려 보고,

이 지구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은지 적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이 지구를 만나기 위해 _____을 할 것입니다.”